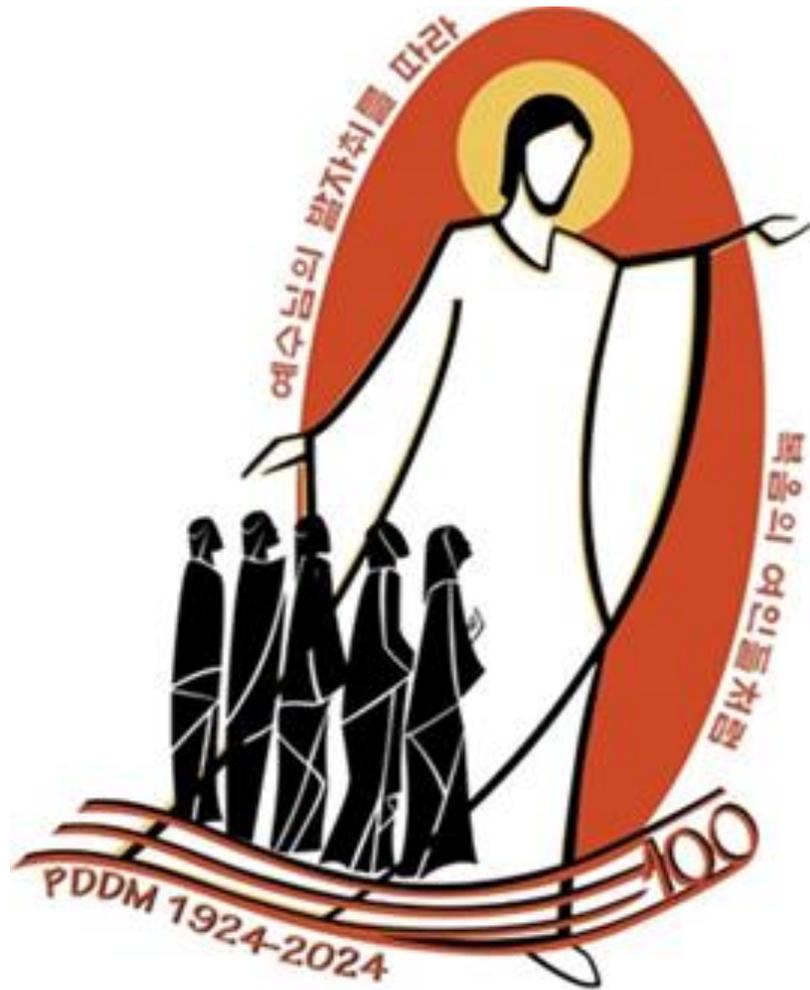


# 창립 희년을 위한 영적 여정



## 넷째 단계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2월 10일



## IV. 단계

### 희년: 새로운 인식의 시기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10일

---

그분이 성취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루카 1,46 이하 참조).

감사는 항상 첫 번째 의무입니다 (APD 1946-47, 129).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APD 1946-47, 229).

---

우리 각자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지역구 그리고 전체 수도회를 위한 주님의 구체적 사랑의 표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지역구)는 적절한 방식으로 감사의 기쁨을 상기하고, 인식하며 서로 나눕니다.

친교, 참여, 사명의 시노드 정신 안에서, 전체 수도회를 위해 제 10 차 수도회 총회가 제시한 길을 받아들입니다.

### 대림절과 성탄의 길에서 마니피캇의 시간

-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무한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여전히 우리 수도회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수도회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개별 교회와 함께 걷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새롭게 합시다.

# 내면회와 기도에 유용한 말씀

## 키리슴마의 원칙에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에게 하신 강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의 신심에 따라 경건한 제자는 양심 성찰을 해야 하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아픔을 지녀야 합니다.

[1.]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므로, 지성의 정화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이성의 빛을 밝혀 주시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신앙의 빛을 밝혀 주십니다.<sup>1</sup> 먼저 우리의 지성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지성의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원칙 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칙에 따라, 온 정신(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생각을 성찰해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고 말씀하시며 경건한 제자 앞에 걸어가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앞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 간 곳을 지나가고, 내가 지난 간 대로 지나가라”는 의미로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는데 있어서 경애심이 부족 했던 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경건한

---

<sup>1</sup> 스승 예수 코론치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

제자가 되어 어떻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존경심을 구하거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 우리의 취향에 맞거나, 환상에 부합하는 삶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거나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고통의 근원이자 결심의 근거가 되는 세가지 성찰 요점입니다. 성찰은 여러분의 신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신 스승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진리이신 스승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며,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만 우리는 스스로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느님이나 그분의 뜻과 관련될 때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묵상을 잘 한다면, 하느님과 관련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을 잘하고 전례 사도직을 잘하면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므로 생각은 하느님과 관련이 있거나 하느님의 뜻에 관한 것이므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포기한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물건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폐를 낭비하거나 태웠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낭비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성은 지폐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을 해치고 공동체생활, 청빈, 정결, 순명을 해치며, 윤리적 가치와 인내, 온유함, 특히 겸손을 해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에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지키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 서원에 반하는 생각을 허용하고,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서원에 대해 후회한다면, 공동생활을 거스르고 서원의 상태를 거스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의로 포기한 세상에 정신과 마음이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으며, 수도서원을 거슬러 인간적 방법으로, 예전처럼 그들과 함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선물과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수도자로서, 경건한 제자로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순명을 거스르는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루카 10,16 참조).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열 번을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장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온 영혼을 다해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영성체 할 때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혀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내밀며 하느님과 함께 하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그 분과 반대되는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거룩할 수도 있고, 무관심하지만 우리 주위의 것을 흘트리고 분산시키는 악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감정을 성찰하십시오. 감정은 겸손에 반대되는 자만심일 수 있으며, 자신이 관리하기를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그들의 장상을 따르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난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재무관리에서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릴 때, 가난의 부족과 정의의 부족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물질적인, 예를 들어 양조장과 같은 행정에서도 숨겨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공평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정들, 즉 애착, 시기, 이것과 저것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아, 이 시기라는 것,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열의가 있는 사람처럼 가장하여, 더 잘 수행하고, 일치를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어떠 한지 성찰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좋지 않은 호기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욕에서 비롯된 감정, 경향, 우정, 특별한 성향들은 마음이 아직 하느님 안에 있지 않으며, 완전히 하느님 안에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유혹과 허락 사이를 이해하고 식별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안함에 대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일정의 편리함이나 삶을 덜 희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원하는 편안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도적인 삶과 다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살피십시오. 모든 것이 즉시 죄가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많은 것이 유혹이고, 많은 것이 불완전하며, 많은 것이 원죄 이후에 우리 안에 풀려난 경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쁜 경향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종종 그것들은 죄가 아니고 단지 경향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백성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투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주 자기애가 우리를 지배하며,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까. 그리고 더이상 삶의 모습을 보여 줄 사람이 없기에 교회에서 하는 것<sup>2</sup>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나 수도자 답지 못해서 칸막이나 커튼이 있거나 해도 커튼이 없을 때와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의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찰은 매우 쉽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의 정신에 반하는 말, 희망에 반대되는, 반은 절망적이고 불신하는 말을 하고, 희망과 믿음에 반대되는 고백성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대신덕과 사추덕을 거스를 수 있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 얼마나 자주 신중함을 무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정의를 거스르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만이 진리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정의와 청빈 안에서

---

<sup>2</sup> 결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도회의 방식이나 규정 안에서 청빈과 정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행위에만 집중하고 다른 요소들은 간과한 체) 사실상 한번의 유일한 검토로 말보다 더 쉽게 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는 먼저 지성과 마음의 내면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결과가 없는 죄, 즉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안에 생각과 감정으로 이미 존재하는 죄가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심에 따라 성찰해야 합니다. 주요한 신심을 실천합시다.<sup>3</sup>

오늘은 감사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오 10 세 교황<sup>4</sup>께서 신자들이 성체께 인도되길 원하셨고, 생각을 더하여 사제에게 향하기를 바라셨던 때부터, 즉 성체와 사제의 결합, 성체를 축성하고 분배해야만 하는 사제에 대해 생각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서는 스승 예수 수녀회의 탄생을 계속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에 의해 인도되었고 지탱되었으며 완성되었습니다.

---

<sup>3</sup> APD 1958, 147-151.

<sup>4</sup> 성 비오 10 세 교황 1903 년 8 월 4 일부터 1914 년 8 월 20 일.

그러므로, 오늘 40 주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장엄한 떼데움을 하루 내내 바칩시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개인에 대한 감사와 수도회 전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적 일치, 성체를 중심으로 한 내적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내적 일치는 성체로부터 양육되어지고, 다른 한 편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유일한 빵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일치. 분열은 자애심에서 비롯되며, 이 자애심은 하느님 사랑의 원수이며 자기 성화의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회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순명 안에서 양순함과 삶의 애덕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치로 이끄는 요소는 바로 일상생활의 두가지 실천적 토대인 순종과 상호애덕입니다.

수도회가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초기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며, 유아기, 청년기를 거쳐 젊은이가 되고 성인이 되어 한 사람으로, 인간의 삶에 조금씩 순응하는 것과 같이 수도회도 성장합니다. 모든 수도회가 그렇습니다. 수도회는 하나의 인격체이며 수도회의 삶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이의 삶과 같습니다.

오, 수도회의 변천사는 모두 수도회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호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습

니다, 수도회는 사람과 사도직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에 진출했습니까? 얼마나 독창적이었습니까? 특별히, 수도회에 몇 명의 회원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도회가 분명하게 설립된 것처럼, 선한 지향으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사명을 완수할 사람, 종신서원을 할 사람들이 수도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지향을 지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성체조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도회에 속한 영혼으로 성화하십시오

-사도직이 점점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도회는 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회헌은 사도직을 위한 좋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는 확실하고, 길은 유일합니다. 이 길은 실제로 고속도로인데, 내려가거나 평평하지 않고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수, 사람들의 열정과 사도직의 완전성 안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하느님과 스승 예수님의 계획안에 있는 그 공헌을 가져올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마태 11,28)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널리 퍼트려야 합니다. 경건한 제자는 예수님께 일치해야 합니다.

- 생각 안에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 의지 안에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회헌의 모든 조항에 영감을 준 그 복음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청합니다...

결론: 오늘,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결심, 동시에 성소를 충실히 살겠다, 성소를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주님께 드립시다. 첫번째로 읽어야 할 책은 복음입니다. 두번째로 읽어야 할 책은 회헌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이 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신뢰를 굳게 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과 믿음, 그리고 믿음과 겸손, 겸손과 믿음이라는 두개의 발걸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sup>5</sup>

경건한 제자의 신심의 영은 무엇이며 경건한 제자의 행동방식과 수도생활, 그리고 사도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천상 스승 예수님께 속해야 하므로, 전례나, 사제직 봉사, 성체사도직 중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직만을 고려하지 말고, 무엇보다 성화, 본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화는 항상 두 개의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째는 포기 또는 자기 희생(극기) 또는 금욕 또는 이탈 또는 죄의 회개 또는 결점에 대한 투쟁 또는 옛 인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격을

---

<sup>5</sup> APD 1964,47-56.

확립하는 것으로 정신, 의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sup>6</sup>

...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스승 예수님의 진정한 삶인 관상 생활과 활동적 삶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스승 예수의 경건한 제자들입니다. 활동적인 삶만 사는 것과 관상적인 삶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천상 스승님을 진정으로 닮게 합니다.<sup>7</sup>

성체 사도직은 모든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에게 필요하며, 이는 기도 생활, 사제직 봉사의 활동, 전례 활동 등 모든 활동의 원천이자 뿌리를 이룹니다. 원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이사 12,3).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물, 천상 스승님께서서는 모두에게 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평야에 퍼지는 이 좋은 물은 생명을 안겨주며,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둘째, 사제직 봉사의 사도직은 그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 (1 코린 4,1 참조)인 사제들을 통해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사제가 수행하는 일의 열매를 나누고, 사제가 집전하는 성사에 (세례, 견진, 사죄, 미사 거행,

---

<sup>6</sup> APD 1957, 184.

<sup>7</sup> APD 1957, 214.

성유 등)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고유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가르치는 그의 모든 직무와 교회 체제, 교회 통솔과 영혼 지도 안에서의 그의 모든 직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매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지만, 부러워할 수 있다면, 만약 허용된다면, 영적 열매와 특별한 공덕을 위해 사제직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제요, 희생자요, 천상 스승이신 당신 아드님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 마리아가 수행했던 바로 그 직무에 온전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가 완전하고 초자연적인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한, 교회에 봉사하는 전례 사도직이 있습니다. 전례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전례의 봉사는 수녀들이 예배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천상 예배에 수녀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천상 예배란 성사, 미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흠송하고, 거룩한 삼위일체를 흠송하며, 성체를 흠송하고, 성령을 흠송하며,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교회에서 거행되는 모든 예식을 의미합니다. 기여와 봉사, 우리는 수도회의 «종»이자 교회의 종, 영혼들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절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 따라가야 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은총의 질서 밖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말라서 비를 맞아야 하는 화분을 비로부터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식물이 되살아 나기

때문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태 20,28 참조)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항상 봉사하기 위해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다. 이 단어가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잘못 이해된 것은 다른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 진정으로 천상 스승님께 속한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자신을 낮추는 만큼 먼저 지상에서 은총으로, 그리고 천상에서 영광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 조건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며 근본적인 조건은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수행하는 것을 염두해두고, 교회에 온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스승이며 거룩함의 스승이고, 구원의 은총과 영혼에 대한 은총의 분배자입니다. 성화자입니다.

전례 봉사는 교회가 진리의 스승이며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불리는 교회의 일부이며, 배우는 사람, 교회의 제자인 것처럼 전례 봉사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배우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회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하는 공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 전례가 무엇인지, 전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오,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반면, 여전히 특정

국가에는 뒤쳐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그러므로 사도직의 모든 부분은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어느정도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 자수, 성상, 다양한 전례복 그리고 여러 도시의 센터에서 전시하며 소개하는 책들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단적인 이미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관하여 처음에는 코스탄티니 추기경<sup>8</sup>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교황청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추악한 것들, 이상한 십자고상, 적어도 여인 마리아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모상 같지 않은 성모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비밀 목적은 교회와 교회 교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코스탄티니 추기경은 강연에서 이를 잘 설명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말해온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확실히 이해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념에 함께 하였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의 봉사. 순수한 교리. 모든 것은 지혜로이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이 그려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영상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것이라면 상징으로 모든 것을 영상화 할 수 있습니다...

---

<sup>8</sup> G. COSTANTINI, 추기경 (1876-1958), 크리스찬 예술 잡지의 창시자이자 설립자이다.

둘째, 통치하는 교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영혼을 인도하며, 거룩함으로 이끄는 교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직무에 참여하려면 ... 이미지, 그림, 조각, 성예술품, 자수, 심지어 사제복을 만드는 봉제까지도 윤리, 선, 수덕, 거룩한 삶, 교황님께서 해석하시고 제안하신 대로 복음을 실천하는 영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모든 덕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선과 국제적 선, 수많은 수녀들, 선교사들, 수많은 기관의 사도적 활동. 이 얼마나 넓은 분야입니까! 사도직은 교회에서 명한대로 교회 안에서 완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두 번째 요점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도 행하여라» (마태 28,20 참조)고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와 협력하는 세 번째 요점은 영혼을 성화시키는 사명과 구속과 은총의 은사를 분배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와 동행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참여와 협력, 교회에 대한 봉사, 이 모든 일은 가능한 한 아름답고 언제나 참다운 전례의 맛이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본질적으로 사도직은 교회의 성화 사업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축, 그림, 시, 음악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과 여러분의 창의성은 모두 영혼들을 하느님과의 일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구원을 의미하기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하느님의 상속자 (로마 8,17), 즉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제단의 아름다운 형태, 메달, 조각상, 그림, 이미지 등이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교회가 부여하는 은총의 보물을 보여 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진리의 스승이자 영혼의 인도자로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은총의 분배자이자 성화자로서의 사명에 협력하는 사도직 정신에 들어가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봉사하고 겸손하게 협력하려는 이러한 지향은 영성체 때마다 항상 청해야 할 은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루카 18,41). 우리가 항상 더 나은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 만약 여러분이 몇 걸음 더 나아갔다면, 더 나아가고, 항상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필요합니다 ... 교회의 겸손한 협력자, 살아있고 활동적인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sup>9</sup>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사도직을 숙고해 봅시다. 성체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성체 사도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체조배 시간에 이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

<sup>9</sup> APD 1957, 330-335.

사제직 봉사의 사도직은 어떻게 이해되니까? 어떻게 수행되고 있습니까? 성체 사도직과 사제직 봉사의 사도직, 그리고 교회에 대한 봉사, 즉 전례 봉사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며 영감을 주고 믿음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체] 사도직을 조배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으로만 간주한다면! 그러나 이는 사도직이며, 온 세상을 위한 봉사여야만 합니다. 그 사제직 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어떤 물질로? 비천하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성모님의 직무라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봉사, 즉 전례 사도직은 어떻습니까? 단지 예술이나 이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제단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일할 때, 신앙의 정신이 있고 내면 안에 왜 저걸 하지? 목적이 뭐지?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지니고 있다면 영혼은 그 안에 있습니다. 초자연적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노동자가 될 뿐입니다. 안됩니다! 그러나 이 정신안에서 잘 수행한다면 진정한 전례 사도직이 됩니다 ...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면 모든 것은 천상 아버지께로 향하게 됩니다.

... 천상 아버지의 사고방식, 경건한 제자 수녀의 사고방식,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사고방식과 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고통, 이를 살도록 즉 그 분께서 활동하시도록 내어 맡기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초자연적 생명, 이 초자연적 유기체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본성 위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 새 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아드님의 사고방식을 아시는 아버지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지성의 성화를 청하고, 아버지의 사고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청하십시오.<sup>10</sup>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성체 사도직, 사제직 봉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혼들에게 유익과 영적인 도움을 주는 한, 이것은 바로 사도직입니다. 사도직. 따라서 경건한 제자의 삶은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이 동시에 있습니다. 관상 생활은 그 자체로 볼 때 활동적 삶보다 우월하지만, 관상생활, 즉 기도가 활동적인 삶, 곧, 사도직과 연관될 때는 후자가 우월합니다.

---

<sup>10</sup> APD 1963,106-108.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더 완전해지기 위해, 관상생활을 위해 나는 이것을 떠난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삶에서 퇴보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상의 삶, 하나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 반면에 활동적 삶에 관상 생활이 결부되면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함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큰 성화의 삶이며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창문 밖의 좌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말고, 성체, 전례 사도직, 사제직 봉사에 여러분 자신과 영혼들을 위한 직무를 맡기신 예수님께서 계신 감실을 바라보십시오. 성체성사는 사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수도회 안에 은총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직은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천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은총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은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 아들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숭고함과 최고의 지위를 갖습니다.<sup>11</sup>

모든 바오로가족은 아직까지 세상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과 개별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원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봉헌은 특별한 봉헌입니다. 자신이 바오로가족의 일원임을 느끼고 완전함을 느끼는 특별한 봉헌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해야 합니다.

---

<sup>11</sup> APD 1963, 122.

여러분은 기도와 사제직 봉사 그리고 성체 사도직에 협력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섬세하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센터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가족과 함께 있고, 부분적으로는 삶과 사회, 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침묵을 조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침묵이 있고 그 다음으로 두어야 할 침묵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은총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수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카르의 우물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될 물을 끌어 올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이고 살아 있는 그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끌어 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일치, 예수님과의 풍요로운 대화는 예수님이 10살, 15살, 20살, 25살, 30살 때 나자렛에서 마리아와 나눈 대화를 모델로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빕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합당한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sup>12</sup>

우리는 마리아를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직의 스승, 세가지 형태의 사도직인 성체 사도직, 사제직 봉사의 사도직, 전례 사도직의 스승이십니다. 마리아는 스승이십니다. 사도직이

---

<sup>12</sup> APD 1963,168.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편적이며 그리스도적이고 종교적인 사도직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성은 이것입니다.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영혼은 하느님으로 충만하고, 하느님에 대해 말할 필요성을 느끼며,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사를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도직은 어느 순간, 너무 가득 차서, 가득 찬 것을 쏟아내는 대야, 물통, 즉 가득 찬 대야에 비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의 물로 가득 찬 영혼은 어느 시점에서 가득 찬 것을 쏟아 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게 (요한 1,16), 마리아로부터 넘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사도와 사도의 충만함에서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과 함께 있었고, 그 분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주었습니다. 영혼이 비어 있으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영혼이 미지근해지면 어느 순간에 사도직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도직을 행한다 해도 그 행위에 더 이상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있다면, 사도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주게 됩니다. 때때로 영혼이 없는 제품이 있고 정신이 가득 깃들여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영이 가득한 제품은 은총과 찬미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사와 전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영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대야나 물통이 조금 깨지고 샹니까? 한 영혼이  
영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세속 정신이 들어가면 교회에서 쓸모  
없게 되고, 쓸모 없게 되면 영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혼들은 우리에게서 사도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사회와 인류 가정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sup>13</sup>

여러분의 사도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흠숭(성체조배), 그리고  
흠숭(성체 조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구원이 교회에,  
바오로가족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열매, 예수님  
설교의 열매, 그 분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즉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 9 백만개의 감실과 사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청하십시오.

성체조배 때 지도나 지구본, 또는 국가들이 적힌 종이나  
대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십시오. 광범위한 사도직! 내적 삶의 사도직이 있지만  
바로 뒤에는 기도의 사도직과 고통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삶의 사도직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강한 창살로 된 창문과 견고하게 닫힌 문이 있는 수도원

---

<sup>13</sup> APD 1963,179.

안에 자신을 가두어 지낸다 하더라도, 그의 영향력, 거룩한 영혼의 영향력은 퍼져 나갑니다, 영혼의 거룩함인 그리스도의 향기 (2 코린 2,15)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널리 퍼져 나가면서 항상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기도의 사도직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지향에 따라 «예수성심이지여»를 암송합시다.

경건한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 요약되는 예수님의 갈망을 따릅니다.

다음으로 사제직 봉사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의 사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있고 성사를 거행하여 성체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활동적입니다. 성체의 예수님은 항상 세가지 측면에서, 즉 희생과 친교, 경배 그리고 감실 안에 실재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교회가 충분한 숫자를 갖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필요합니까? 300 만 명의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4 만명의 수도 사제와 26 만명의 교구 사제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수도회부 장관이 말한 바에 따르면, 수녀는 170 만명입니다. ... 이 숫자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

그리고 이 사제직 봉사의 사도직에 헌신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교회에는 하느님께 봉헌된 많은 사제들과 많은 영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제의 수는 지금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복음과 교회,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사제들이 ...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에 대한 전례 봉사가 있습니다. 사제들은 미사 전례복, 제단, 교회, 고해성사 및 예배로 이어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데 모든 것이 필요하므로 전례 사도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를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 중심인 미사와 같이 엄격하게 전례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성사로 불리지는 않지만 준성사로 불리는 십자고상, 묵주, 성상, 그림, 음반처럼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모든 수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셨듯이 성찬의 중심은 성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직은 그리스도 안에,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 안에 요약되므로 성모님 안에 모든 사도직이 있습니다. 그 분을 세상에 주신 분은 바로 성모님입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sup>14</sup>

---

<sup>14</sup> APD 1963,180-182.

## 생명의 규칙

24.

스승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정결·청빈·순명의 공적 서원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한다.

우리는 사도 바오로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창립자와 마드레 스콜라스티카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에 내어 맡긴다.

66.

우리는 침묵을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는 고귀한 선물로 여긴다.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로 주님과 이웃을 극진히 맞아들이며 참된 소통의 방법을 배운다.

우리는 잠심 속에 본질을 순화하고 정화하며 집중하는 힘을 기른다.

이러한 침묵의 삶은 우리를 충만한 내적 삶으로 인도하고 사도적 효과의 원천이 된다.

71.

하느님께서서는 부르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수도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강력하고도 감미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고 공동선을 위해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재능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한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들 가까이에 있다.

영원히 성실하신 주님께 언제나 새로이 의탁할 수 있도록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우리는 희망 속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간다.

또한 봉헌 생활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 132.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축성하시어 세상에 보내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축성하시고 파견하신 성부께 영광을 드린다.

순례자요 선교사인 교회는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다.

파스카 신비의 체험은 우리의 마음에 견잡을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을 피우고, 우리 가슴에서 활활 타올라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불을 지핀다.

133.

성체 · 사제직 · 전례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우리 사명의 유일한 원천이요 목표이다.

스승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인도되고 양성된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안하는 사도적 애덕을 증진한다.

136.

우리는 우리 사명의 전형이신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와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처럼 교회와 바로로 가족 안에서 스승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

그들과 같은 정신으로, “모두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협력한다.

## 김시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뜻깊은 날들

1948년 9월 14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 수련장 소임을 받고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출발하여, 다음달인 10월 2일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다.

1989년 10월 22일: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님 복자로 선포되다.

1936년 10월 27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 종신서원을 하다.<sup>15</sup>

10월 29일: 스승 예수 대축일<sup>16</sup>

1923년 11월 21일: 바오로 가족 안에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오르솔라 리바타와 메틸데 젤를로토를 따로 떼어놓다.

1971년 11월 26일: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로마에서 선종하다.

1936년 11월 29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 마리아 엘리야 웨레로 수녀님과 함께 이집트에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

<sup>15</sup> 뿌리에서 본 나무 ...p. 92.

<sup>16</sup> APD 1957, 85 “우리는 스승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18 “여러분은 천상 스승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폴리 항구에서 떠나 12 월 2 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다.

2013 년 12 월 9 일: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느님의 종 마드레 스콜라스티카의 영웅적 덕행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가경자로 반포하다.

1924 년 2 월 10 일: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의 탄생의 날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Casa Generalizia – Via Gabriele Rossetti, 17 – 00152 – Roma

<http://pddm.org>